

KIA 골든글러브 영예는 없었다

투수 양현종만 성실 매너로 페어플레이상 수상

롯데 홍성흔, 타격 7관왕 이대호 누르고 최다득표

롯데 홍성흔이 최다득표로 황금장갑을 품에 안았다. 지난 시즌 4개의 골든글러브를 싹쓸이 했던 KIA 타이거즈는 무관에 그쳤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10 프로야구의 대미를 장식하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렸다.
 총 37명의 후보가 10개의 골든글러브를 놓고 각축을 벌인 시상식에서 롯데의 '패왕' 홍성흔은 지명타자 부문에서 총 유효투표수 373표 중 344표를 획득,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됐다.
 홍성흔은 프로야구 사상 첫 타격 7관왕으로 3루수 골든글러브를 품은 팀 동료 이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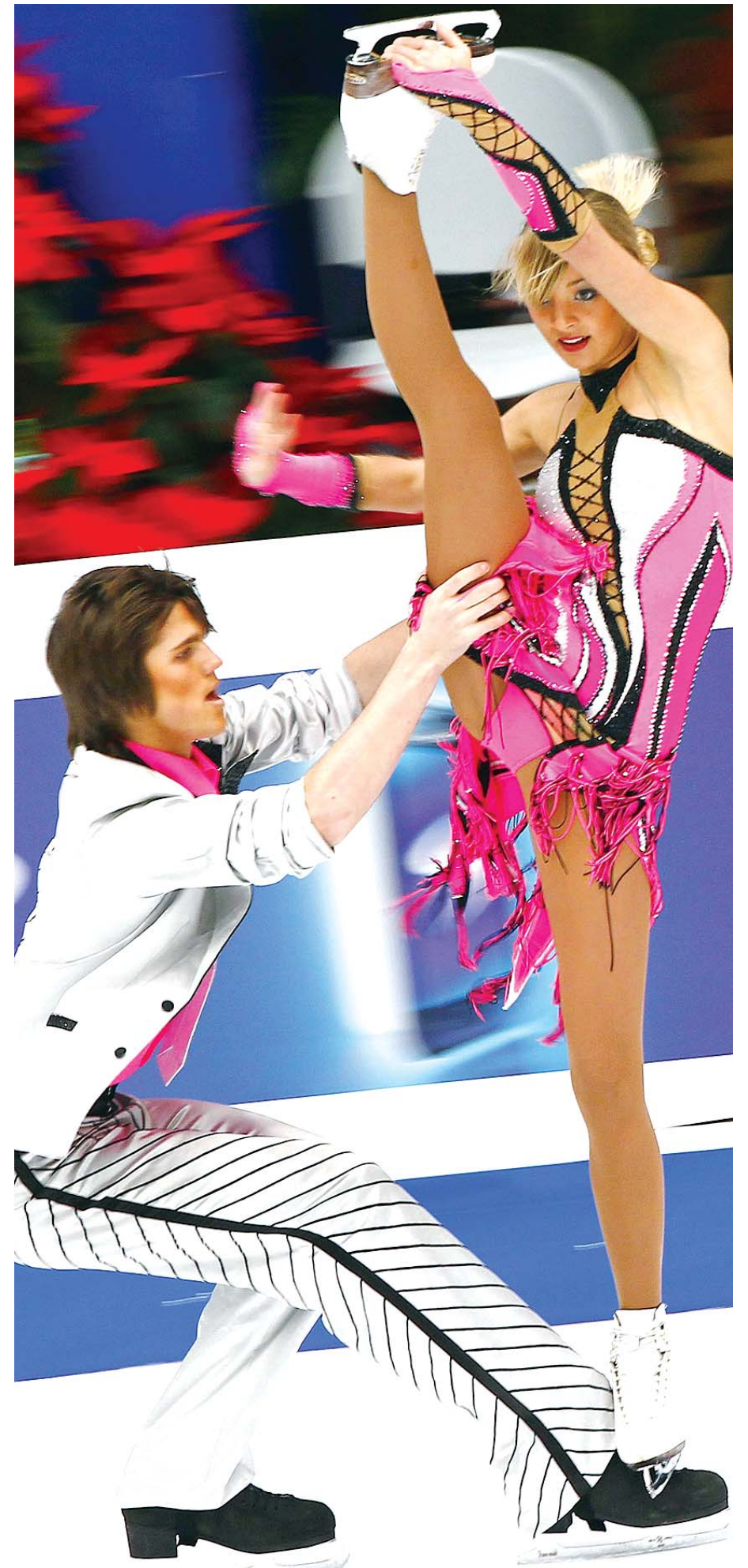
(343표)를 한 표차로 누르고 최다득표의 영광을 누린 것은 물론 2008년부터 3년 동안 지명타자 부문을 독식했다.
 마운드에서는 23경기 연속 켈리타스타트(선발투수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의 역투를 펼친 한화 류현진이 326표를 획득해 34표에 그친 다승 1위 SK 김광현을 제치고 골든글러브를 안았다. 신인왕과 최우수선수를 동시에 거머쥐었던 2006년 이후 두 번째 수상이다.
 포수 최초로 한 시즌 100타점을 기록한 LG의 안방마님 조인성은 167표를 받아 국가대표 안방을 책임진 SK의 박경완을 단 2표차로 누르고 골든글러브 시상대에 올랐

■ 2010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수상자

투수	류현진(한화)
포수	조인성(LG)
1루수	최준석(두산)
2루수	조성환(롯데)
3루수	이대호(롯데)
유격수	강정호(넥센)
외야수	김현수(두산)
	이종욱(두산)
	김강민(SK)
지명타자	홍성흔(롯데)

다. 또 다른 격전지로 눈길을 끌었던 유격수 부문에서는 넥센 강정호(224표)가 두산 손시현(135표)을 제치고 생애 첫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KIA는 최희섭·안치홍·이용규를 각각 1루수·2루수·외야수 부문 후보로 내세웠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다. 최희섭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1루에서는 두산의 중심타자 최준석이 220표를 득표하며 골든글러브를 가져갔다. 2루수 부문에서는 롯데 캡틴 조성환(182표)이 SK 정근우(165표)를 17표차로

파돌리고 2년 만에 골든글러브를 되찾았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외야수 부문에서는 두산 김현수(319표)·이종욱(155표)이 집안잔치를 벌였고 광주우 아시안게임에서 첫 태극마크를 달았던 SK 김강민(177표)도 골든글러브수상자 대열에 합류했다. 삼성 박한이와 KIA 이용규는 각각 146표와 138표를 기록하며 수상에는 실패했다.
 구단별로는 롯데와 두산이 각각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고 삼성과 KIA는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KIA 투수 양현종은 페어플레이상을 받으면서 팀에서 유일하게 시상대에 올랐다. 뛰어난 성적과 성실한 매너로 페어플레이상 수상자가 된 양현종은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 등을 받았다.
 한국스포츠사건기자회가 선정한 골든포토상은 올 시즌 그라운드 은퇴를 선언한 삼성 양준혁이 가져갔다.
 /김어물기자 wool@kwangju.co.kr



러시아의 알렉산드라 스테파노바(오른쪽)와 이번 시즌 5년 만에 그랑프리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그랑프리 파이널 정상까지 정복했다.



추신수 2년 연속 '올해의 인디언스'

올해 미국프로야구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2년 연속 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로 뽑혔다.
 미국 오하이오주 지역지인 더 모닝저널(The Morning Journal)은 12일(한국시간) 추신수가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를 리블랜드 지회에서 뽑은 '올해의 인디언스 선수'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추신수는 지난해에 이어 두 시즌 연속 이 상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지난 1968년 제정된 이 상을 2년 연속 받은 선수는 1991~1992년 카를로스 바에르가와 1998~1999년 매니 라미레스에 이어 추신수가 세 번째다.
 추신수는 올 시즌 타율 0.300에 홈런 22개, 도루 22개를 기록해 클리블랜드 선수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타율 3할과 20홈런-20도루를 달성한 선수가 됐다. 타점도 90개를 올려 자신의 한 시즌 최다를 다시 썼다.
 3할에 20-20를 넘어서 달성한 선수는 아메리칸리그에서는 추신수가 유일하고 전체 메이저리그에서 3명밖에 없었다.
 한편 지난 11일 국내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 참가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친 추신수는 오는 27일을 전후해 미국으로 출국해 본격적인 몸단장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무승부에도 0.5승 인정해 달라”

프로야구 8개구단 감독들 KBO 이사회에 건의

프로야구 8개 구단 감독들이 무승부를 패배로 규정된 현행 무승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각 구단 감독들은 11일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감독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무승부 제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와 이상일 KBO 사무총장, 6개 구단 감독, 윤동균 KBO 경기운영위원장, 조종규 KBO 심판위원장이 동석해 경기 제도와 운영에 관련된 의견을 냈다.
 김성근 SK 감독은 제야 박재상의 결흔식 주례 관례로 불참했고 현재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마무리 훈련을 지휘 중인 박종훈 LG 감독은 김기태 LG 2군 감독을 대신 보였다.
 각 구단 감독들은 지난 2년간 정규 시즌에서 시행해 온 '무승부=패배' 공식이 불합리하다면서 연장 12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0.5승을 주는 게 낫다고 합의했다.
 1982년 태동한 한국프로야구는 1987년부터 1997년까지 무승부에 0.5승을 주는 승률제를 시행했다. 승리 숫자와 무승부 숫자(무승부 게임 X 0.5)를 합해 전체 경기 수로 나누는 방식이다.
 그러다 1998년부터 무승부를 경기 수에서 빼고 팀 승수를 전체 경기수로 나누는 일본식 승률제를 2002년까지 실시했다. 2003~

2004년에는 다승제로 바꿨다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다시 일본식 승률제로 환원했다.
 현장 최고 책임자들이 무승부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14일 열릴 KBO 이사회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독들은 현재 팀당 133경기씩 치르는 정규 시즌을 2012년부터는 140경기로 늘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수가 늘면 당연히 1군 엔트리도 증가해야 한다고 현재보다 1명 많은 27명 등록, 25명 출전 방안을 이사회에 건의할 것이다.
 감독들은 또 내년부터는 비활동 기간을 준수, 12월에는 팀 훈련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냈고 마무리 훈련도 외국보다는 제주도를 적극 활용하자고 입을 모았다.
 /연합뉴스

KIA “2011 탁상용 선수달력 팝니다”

KIA타이거즈가 13일부터 2011년 탁상용 선수달력을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탁상용 달력에는 2011시즌 경기일정이 담겨 있으며 종합형과 개인형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형은 KIA의 주요 선수들의 사진이 담겨져 있고, 개인형은 이종범, 최희섭, 김상현, 김성훈, 이용규, 나지완, 안치홍, 서재웅, 윤석민, 양현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달력은 개당 5000원으로 배송비는 착불이다. 10개 이상 주문시 배송비는 구단이 부담한다. 주문은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하면된다.
 22일까지 연하장 보내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마무리 훈련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 직접 작성한 연하장을 구단 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1등 1명에게는 디지털카메라가 상품으로 증정된다.
 /김어물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역시 쇼트트랙 강국

월드 4차대회 남녀 1500·1000m 우승

한국 쇼트트랙이 2010~2011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에서 하루 동안 걸려 있던 금메달 4개를 싹쓸이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진 대회 이틀째 남녀 1500m 1차 레이스와 1000m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가장 먼저 열린 여자 1,5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 양신영(한국체대)은 2분28초21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 행진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남자 1500m 1차 레이스에서는 김철민(부흥고)이 2분16초190의 기록으로 송웨이룡(중국, 2분16초191)을 0.001초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금메달 행진은 1,000m에서도 이어졌다.
 조해리(고양시청)가 여자 1000m에서 1분32초655 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저우양(중국·1분32초916)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고, 남자 1,000m에서는 노진규(경기고)가 1분30초345의 기록으로 진기에 네트(네덜란드·1분30초402)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봤지? 환상의 프리연기

미 시즈니 파이널 우승

알리사 시즈니(미국)가 2010~2011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시즈니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16.99점을 얻어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63.76점)를 합쳐 종합 점수 180.75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시즈니는 프리스케이팅에서는 두 차례나 점프에서 감점당한 등 불안한 연기를 펼쳐 3위에 그쳤지만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실수 없는 연기를 펼쳐 차이를 벌린 덕에 선

두를 지켰다.
 지난 시즌까지 그랑프리 파이널에 한 차례 출전해 6위에 오른 게 성적의 전부인 시즈니는 올 시즌 5년 만에 그랑프리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그랑프리 파이널 정상까지 정복했다.
 시즈니는 자신의 종전 최고점(172.37점)을 8점 넘게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지만, 그럼에도 지난 3년 동안 김연아가 거둔 최점점과 비슷한 성적밖에 내지 못해 이번 그랑프리 시리즈는 '김빠진 대회'가 됐다.
 남자 싱글에서는 패트릭 켄(캐나다)이 259.75점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오다 노부나리(일본·242.81점)와 코즈카 다카히코(일본·237.79점)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